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한과 북한 보도 프레임 연구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보도 논조 분석을 중심으로*

류석진(서강대학교) · 조희정(이화여자대학교)

이 글은 지속적인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 현실적 차원에서의 재외동포 연구, 재외동포 연구의 일부로서 ‘미디어’ 연구,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정보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정보를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보도 논조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인식하는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주요 이슈, 관점의 차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북한보다 남한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한에 대한 높은 관심 혹은 남한에서의 조선족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원의 경우는, 중국 신문 정보원이 높게 나타나 중국 정부의 성급 신문에 대한 통제를 알 수 있었으며, 남북한 언론을 정보원으로 하기보다는 외신을 정보원으로 하여 뉴스의 보도보다는 간접적인 뉴스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보도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정치·경제적 대중관계에 대한 관심, 남한 사회의 사건·연예 분야에 대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높게 보도되었다. 넷째, 보도 논조는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지만 부정의 비율도 높은 편에

* 이 논문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2015년 5월 2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용한 토론을 제시해준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속했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는 남북한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논조가 많고 중립적인 입장이 적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조선족 관련 뉴스이거나 정치외교 등의 경성 의제에 대한 논조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재외동포 언론 연구, 수용자 입장에서의 미디어 연구 및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노력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외동포 신문, 조선족, 남한, 북한, 중국

1. 문제 제기

이 글은 중국의 재외동포¹⁾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남한 뉴스를 분석하여 송신자(communicator)로서 재외동포 언론사의 시각을 정리하고, 보도량·정보원·보도 분야·보도 논조의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정보 생산 경향을 비교·평가한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측면에서, 재외동포 연구는 민족적 차원의 주제에만 당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2012년부터 재외선거제도 대상으로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 투표율은 높지 않더라도 —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20%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즉, 투표권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장(場)의 주요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의미한다. 이보다 다소 광범위한 의미의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의미한다.

행위자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재외동포 연구는 민족성 강화와 국가 홍보의 수동적인 대상화에만 머물러왔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역외자(outsider)로만 다루는 것은 ‘부당’하고, 민족공동체 개념 중심으로만 파악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민족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재외동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차원에서 본국과 재외동포, 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간의 소통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런 필요성의 연장선상에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와 정보 연구 차원에서, 남북한은 대외 홍보를 위해 각자 정부활동에 유리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²⁾에서 생성되는 뉴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다문화 사회의 매체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모순적인 현실이다. 더구나 재외동포 미디어 가운데 북한 관련 미디어는 『조선신보』처럼 『국가보안법』 규제에 의해 아예 접근마저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리하게 재외동포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도 국가마다 매우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에스닉 미디어는 특정 지역 내 이주민이자, 인종적·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혹은 이들이 만드는 모든 매체를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적 공간을 가로질러 언어나 민족적·인종적 연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까지도 포괄한다. 에스닉 미디어는 언어, 제작 주체, 수익원, 콘텐츠, 대상 지역, 수용자층, 전송(배포) 수단 및 지역에 따라 존재 방식이 다양하다[김유정 외, “중국 동포 커뮤니티 형성과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56집 3호(2012), 349쪽에서 재인용].

더구나 현재와 같이 재외동포 대상의 별도의 통일교육 교재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통일방송 콘텐츠(contents)도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 정보를 그나마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미디어는 — 산발적인 인터넷 정보를 제외하고는 — 언론이 거의 유일하다. 아울러, 많지 않지만 기존의 재외동포 미디어 이용도 조사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인터넷, 신문, TV 순(5 : 5 : 4 정도)이며,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라디오의 기능은 쇠퇴하고, 인터넷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문의 정기구독률 또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남북한 정보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재외동포 미디어의 정보 습득 경로,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현지 정보 습득의 중요성 때문에 재외동포 미디어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재외동포 미디어는 재외동포 현황과 동정에 대한 유일한 뉴스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다양한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다.³⁾

셋째, 미디어와 대상의 측면에서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논조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즉, 외국에서 — 타자 아닌 타자로서 — 재외동포가 보는 남한과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북한 정보 생산과 달리,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정보 생산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비록 직접 취재보

3) 김원태·박세중, “재미 한인의 언론 수용 구조와 특징: 민족정체성과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세계한민족 네트워크: 韓商, 교육, 문화공동체 자료집』(2005), 427~442쪽; 이제환·노지현,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주요 한인 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집 4호(2005), 63쪽.

다는 간접 취재 혹은—러시아나 중국의 경우—현지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제한성이 있지만 그다지 체제 제한을 느끼지 못하는 재외동포가 바라보는 ‘한국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보의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그리고 보도 논조를 면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공신력, 정확성, 분야별 정보의 균형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 (당위적이지 않은) 현실적 차원에서의 재외동포 연구, 재외동포 연구의 일부로서 ‘미디어’ 연구,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정보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정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인식하는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주요 이슈, 관점의 차이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대상은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인 중국의 재외동포 신문이다. 재외동포 언론으로는 TV, 신문, 인터넷 미디어가 대표적인데, 이 글에서 조사한 신문의 경우 현재 인터넷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글의 조사 대상은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이유는, 중국의 재외동포 언론이 웹으로 전환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공통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2014년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6개월간의 남북한 정보를 전체 보도량과 비교하여 양적인 평가를 하고, 또한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과 같은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재외동포 언론에 대한 과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와 재외동포 언론 현황

1)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는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정보활나 정보행태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재외동포 선거권까지 실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정보사회가 발전되어 정보자원이 풍부해진 현재, 재외동포 미디어 이용활동의 현실적인 영향력이나 다양한 미디어의 재외동포에 대한 영향 등이 풍부하게 연구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 경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는 대자적 집단(a group in itself)의 즉자적 집단(a group of people)화 과정을 연구한, 대상으로서의 재외동포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는 총괄적 차원에서 국내 재외동포 연구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대상으로서 재외동포 현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 등 다수의 재외동포 거주 지역을 한정하여 연구하다 보니 다른 국가나 지역 재외동포와의 비교 연구도 부족하다. 아울러 재외동포 조직(경제 조직 포함)과 계층의 사회문화적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대상 그 자체의 특성을 ‘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대상과 방법론의 심화보다는 연구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초기 단계의 사례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는 특정 국가의 동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중국, 미국, 일본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 재외동포의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⁴⁾ 그러나 점차적으로 재외동포 규모가 증

대하고 — 세대(generation) 다양화에 의해 — 민족정체성도 다양화되고, 미디어가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각국 재외동포의 미디어 이용을 비교하여 양자 간 차이의 특징과 그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즉, 유형화, 특징 분석, 영향 분석 등으로 연구가 더 심화되고 진일보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 연구의 방법론과 내용은 주로 서베이(survey)에 의한 간접적이고 계량적인 내용 파악에만 머물러 있다. 즉, 뉴스 내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콘텐츠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 매해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재외동포 언론의 현황을 분석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국언

-
- 4) 김원태, “재미 한인 사회의 한인방송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9호(2000), 95~130쪽; 김원태, 『재외한인 언론의 역사와 현황 기초연구』(서울: 집문당, 2005); 김원태·박세중, “재미 한인의 언론 수용 구조와 특징: 민족정체성과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427~442쪽; 김유정 외, “중국 동포 커뮤니티 형성과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관점에서,” 347~375쪽; 민형배, “재중 조선족 언론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특징: 동북 3성 신문·방송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0호(2004), 127~149쪽; 민형배,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의 언론매체 수용구조 변화: 남한방송 이용자의 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시대 조선족사회 발전을 위한 귀향 아리랑 문화축제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5), 59~83쪽; 이제환, “동경 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 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1호(2005), 91~116쪽; 이제환, “재미한인의 정보행태: 중서부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집 2호(2008), 39~63쪽; 이제환·노지현,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36~75쪽; 이제환·장덕현·이연옥,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관서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집 3호(2004), 221~248쪽; 임영상, “재외한인사회와 디지털 콘텐츠,” 『재외한인연구』, 제23호(2011), 101~125쪽; 주지혁, 『초국적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과 효과: 연변 조선족 대학생의 한국 위성방송 이용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차희원·조은영·백상기, “공중외교적 관점에서 본 재외동포의 모국 미디어 이용과 모국 명성의 관계: 미국, 태국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7집 3호(2013), 189~220쪽; 채백·이재현, 『중국 조선족의 언론과 문화』(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5).

론연감』 데이터는 — 몇 가지 기획 기사를 인용하여 요약·정리하는 것 외에 — 그나마 2010년부터는 재외동포 언론 자체에 대한 종합 조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국가별 재외동포 언론 특집에 대한 소개는 2010~2013년까지 네 차례만 한시적으로 간행되었을 뿐이다.⁵⁾ 즉, 국내에서 재외동포 언론은 미디어 연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타자 아닌 타자로서 재외동포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 연구로서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 가설은 ‘사람은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재외동포의 정치사회화 과정이나 민족정체성⁶⁾ 강화 과정에서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전제로 한 연구들은 민족 정체성 강화 수단으로서 언론과 방송 및 문학을 연구하는데, 주로 적응이나 동화 과정에 집중한 나머지 수용자를 수동적 존재로 평가하는 한계가 나타나기 쉽다. 또한, 미디어 연구에서 수용자의 이용도, 신뢰도, 이용 목적 등의 몇 가지만 선별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인터넷 보편화와 정보 확산으로 인해, 하나의 미디어가 아니라 다차원의 정보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접근에서도 한계가 있다.

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2a);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국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2012b);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14).

6) 민족정체성은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 글의 방법론과 일치한 유일한 연구로는 전일옥, 한동섭·김형일의 연구가 있다. 전일옥은 중국 동포 신문에 나타난 남북한 논조를 비교하였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1년까지 『길림신문』과 『흑룡강신문』에 나타난 남북한 관련 정보의 보도량, 보도 유형, 정보원, 보도 주제 및 논조 등을 분석하였다.⁷⁾ 단, 필자가 논문의 결론에서 밝힌 것처럼 연구 대상을 중국 동포 신문에 한정하여 여타 국가나 중국 내 동포 신문 간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편, 한동섭·김형일의 연구는 상세한 내용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재외동포 언론의 환경 속에서 대표적인 신문들의 1개월 정도의 보도 내용만을 분석하고 있다.⁸⁾

결과적으로 기존 재외동포 미디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미디어 분석, 미디어 이용 효과 연구 및 각국 재외동포 미디어 이용 비교, 재외동포 미디어에서의 남북한 논조 분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프레임(frame) 연구 차원의 재외동포 미디어의 남북한 뉴스 분석이 부족하다.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 기사를 특정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서 프레임을 인식하여, 사건을 뉴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뉴스 프레임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현실을 구성하는가에 주목한다. 허만(E. S. Herman)과 촘스키(N. Chomsky)의 프로파간다 모델(Propaganda Model)을 적용한 프레임 연구에서는 뉴스 논조 분석을 통해 언론의 영향력이 현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한 행위자일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⁹⁾

7) 전일옥, “중국언론매체의 남북한 보도태도 비교연구: 길림신문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제22집 2호(2012), 79~103쪽; 전일옥, “중국 흑룡강 신문의 남북한 보도내용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23집 1호(2013), 3~21쪽.

8) 한동섭·김형일,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 국가별 재외동포 언론 현황

2013년 말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약 700만 명으로서 주로 중국,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한다. 거주 규모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 257만 명(37%), 미국 209만 명(30%), 일본 89만 명(13%) 순으로서 중국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¹⁰⁾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일본도 13%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큰 규모의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외언론은 소위 민단과 조총련의 기관지로서 체제 편향성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거의 한국 신문과 유사하여 재외동포 신문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연예 뉴스의 편중이 너무 심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제외하였다. 주요 재외 동포 거주국가 규모별로 대표적인 국가의 재외동포 언론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에는 1900년대 초부터 7,000명가량의 한국인이 정착하여 현재 까지 20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자유롭고 재외동포 인구도 많으며,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별 재외동포 언론도 매우 많다. 『신한민보』를 시작으로 한국 신문의 미국판으로서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미주동아일보』가 고국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하여 미국 내 완전한 자사를 설립하였다.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약 40여 개의 재외동포 언론이 있는데, 2000

9) E. S. Herman, and N. Chomsky,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New York: Pantheon Books, 1988).

10)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2013), 40쪽.

년대 들어 미국 경제 위기에 따라 여러 동포 언론사들이 문을 닫아서 활동 수가 줄어들었고,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굳이 재외동포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고국 소식을 접하기 쉽기 때문에 재외동포 언론에 대한 인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는 동포들이 굳이 재외동포 언론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 간격은 주간이 22개로 가장 많고, 일간과 월간이 각 5개씩이며, 격주간지가 2개 정도이다. 발행면수는 최저 8면에서 최고 168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발행규격은 대판이 8개, 타블로이드판 10개, 베를리너판(가로 323mm, 세로 470mm) 1개, 레터판 2개, A4판 2개, 기타 규격이 7개 정도이다. 이 가운데, 100% 한국어로만 발행하는 매체는 18개 정도이다.¹¹⁾

(2) 중국

중국 최대 재외동포는 조선족이다. 이들 가운데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97% 가량이 모여 집거지를 이루고 있다.¹²⁾ 재중 조선족 언론은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 언론정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언론이 일체가 되는 능동적·주체적 존재로서 적극적인 의미의 형태를 띤다.¹³⁾ 또한 개혁개방 이후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11) 한동섭·김형일,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 31쪽.

12) 민형배,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의 언론매체 수용구조 변화: 남한방송 이용자의 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60쪽.

13) 민형배, “재중 조선족 언론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특징: 동북 3성 신문·방송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132쪽.

<표 1> 중국 재외동포 언론 현황

신문명	URL	창간	발행 면수	발간 규모
광둥뉴스	-	1999년	52면	-
√ 길림신문	http://www.jlxcwb.com.cn	1985년	8면	30,000부
√ 료녕신문	http://www.lnsm.ln.cn	1958년	8면	20,000부
베이징저널	-	1997년	16면	12,000부
상하이저널	http://shanghaiabang.net	1999년	48면	15,000부
서남저널	http://cafe.daum.net/xinanjournal	2005년	20면	-
연변25시	http://blog.daum.net/jlxwyb25	2006년	16면	-
연변일보	http://www.iybrb.com	1948년	8면	-
위클리홍콩	http://weeklyhk.com	2003년	20면	3,000부
홍콩 수요일저널	http://www.wednesdayjournal.net	1995년	20면	3,000부
√ 흑룡강신문	http://www.hljxinwen.cn	1961년	4면	20,000부

자료: 한동섭·김형일,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 176~18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정보원을 보았을 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통제하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운영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제한성이 있다. 아울러, 조선족 인구 감소와 이동, 조선족 거주지의 낮은 도시화 심화, 언론 전문 인력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있다.

전체 25개 언론사 가운데, 과학, 교육, 예술 등 전문 분야 및 잡지, 월간신문 언론 제외한 대표적인 일·주간 중국 재외동포 언론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발간 규모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발간 규모가 큰 순서대로 『길림신문』, 『료녕신문』, 『흑룡강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전체 중국 재외동포 언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재중동포 신문은

1948년 연길에서 『동북조선인민보』로 창간한 『연변일보』이다. 이 신문은 1955년에 현재의 제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간으로 4면을 발행한다. 『료녕신문』은 1958년 조선족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룡녕농민보』를 창간하였지만 1961년 초에 정간, 1965년 복간하였고, 1986년부터 『료녕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¹⁴⁾

『흑룡강신문』은 중국 흑룡강성 공산당 위원회 선전부의 지도를 받는 조선어 기관지이다. 1961년 『흑룡강일보』로 창간 후, 1983년 성급신문으로 부상하면서 『흑룡강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고 일간 8면으로 6만 5,000부를 발행한다. 특히, 『흑룡강신문』은 동북 3성 지역에서 남북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1985년 창간한 『길림신문』은 중국 길림성 공산당위원회의 한국어 기관지(성급신문)로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동포 신문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일간 4면을 1만 2,000부 정도 발행한다.

(3) 일본

일본의 『통일일보(統一日報)』는 1959년부터 발간된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동포 신문으로서 일본, 한국,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간 형태로 발간하고 발행부수는 20만 부에 이른다. 초기에는 사회면과 문화면을 통해 재일동포사회 정보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지만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14) 중국 조선어 신문의 시기별 변천사에 대해서는 민형배, “재중 조선족 언론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특징: 동북 3성 신문·방송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140~141쪽 참조.

15) 전일옥, “중국 흑룡강 신문의 남북한 보도내용 연구,” 4쪽.

을 대변하는 기관지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총 6면으로 발행하며 정치, 경제, 사회, 기획, 문화/스포츠, 재일동포사회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어로만 제작한다.¹⁶⁾

『조선신보(朝鮮新報)』는 1945년 창간¹⁷⁾되어 조선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나누어 주 3회(월, 수, 금) 8면(한국어판 4면, 일본어판 4면)을 발행¹⁸⁾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¹⁹⁾로서 『노동신문』과 함께 대표적인 북한 홍보매체이다. 『조선신보』 재일한인인 조총련에 의해 제작·보급되며 편집 방침 자체가 사회주의 조국 옹호 및 재일교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 수호, 자주 평화통일 촉진,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국제적 연대 강화이고, 평양 지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일방적인 북한 홍보와 재일동포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3.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뉴스

재외동포 신문의 남북한 뉴스에 대해서는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보도 논조를 분석하였다. 보도량은 가장 기본적인 양적 지표로서 조사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시기별로 관심도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16) 이제환·노지현,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64~65쪽.

17) 1961년부터 제호를 『조선신문』으로 바꾸었다.

18) 『조선신보』는 인터넷판(<http://www.korea-np.co.jp>)도 발행하지만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접속금지 대상 사이트이다.

19) 민단에서는 『민단신문』을 발행한다.

<표 2> 분석 내용과 기준

구분	기준
보도량(횟수)	조사 기간에 보도된 기사 수량
정보원	현지 통신, 남한 언론, 북한 언론, 자체 기사, 전문가, 대상자 및 가족, 현지인, 교포, 독자 투고, 정리 기사, 보도자료 등
보도 분야	정치(일반, 대중관계, 대북관계, 대미관계, 대일관계, 대러관계, 인물, 군사), 경제(산업, 노동, 관광, 부동산), 사회(일반, 교육·학술, 보건, 사건, 복지, 행사), 문화(일반, 스포츠, 예술, 역사 유적, 연예, 행사) 등
보도 논조	긍정, 부정, 중립

자료: 전일옥, “중국언론매체의 남북한 보도태도 비교연구: 길림신문을 중심으로,” 82 쪽; 한동섭·김형일,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이다.

정보원은 직업 취재인지 간접 보도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각기 출처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소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취재원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재외동포 신문의 특성상 각기 남한과 북한 신문을 인용 보도할 확률이 매우 높는데, 그렇다면 남한의 신문은 이와 같은 정보 재생산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정보원이 중요한 정책적 자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보도 분야는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대분류를 하더라도 중분류의 내용이나 비중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 뉴스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면 중국은 정치나 사회 분야 뉴스가 많이 보도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의 다양한 중분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내용에 따른 편향성도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야 편향성이야말로

재외동포 언론이 바라보는 ‘남북한 모습’의 일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도 논조는 남북한에 대한 긍정·부정의 입장 혹은 긍정이나 부정이 아닌 중립의 입장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북한을 다룰 경우에는 부정적 측면이나 논리보다는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재외동포 언론에서는 어떤 논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보도량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보도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것은 『흑룡강신문』이고, 『길림신문』보다 『료녕신문』의 보도량이 3배 이상 많다. 보도량의 차이는 신문의 규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둘째, 남북한을 기준으로 보면, 세 신문 모두 북한보다 남한에 대한 보도량이 훨씬 많으며, 남북한을 공동으로 다루는 이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길림신문』의 남한 뉴스 보도량은 북한에 비해 6배 이상 많으며, 『료녕신문』은 60건 이상 많았고, 『흑룡강신문』은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북한 뉴스가 적게 생산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한에 대한 관심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음의 보도 분야 분석을 참조하면 더욱 확실해지는 부분인데, 중국 재외동포 신문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족이 더 많이 생활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로 반영된 것이며, 이는 중국

<표 3> 중국 『길림신문』과 『료녕신문』의 남북한 보도량 (단위: 건)

구분	길림신문				료녕신문				흑룡강신문			
	남	북	남북	합계	남	북	남북	합계	남	북	남북	합계
2014.10	24	8	2	34	40	19	20	79	72	11	0	83
2014.11	29	3	1	33	76	20	6	102	126	13	5	144
2014.12	20	0	0	20	37	29	3	69	159	9	0	168
2015.1	25	1	0	26	61	46	1	108	186	17	0	203
2015.2	16	1	0	17	11	27	3	41	135	4	0	139
2015.3	14	7	0	21	21	40	3	64	166	13	0	179
합계	128	20	3	151	246	181	36	463	844	67	5	916

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중앙 정부의 시각과 구분되는 소수민족 언론의 시선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6개월간 시기별 보도량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북한의 큰 뉴스가 있었다면 시기별 보도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연구 대상 신문 모두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비슷한 규모의 보도량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체 보도량 대비 남북한 뉴스의 보도량을 보면, 일단 전체 보도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흑룡강신문』의 6개월간 전체 보도량이 5,90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남북한 관련 보도량은 916건으로 16% 정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건을 보도할 경우, 그 가운데 남북한 보도가 16건이 포함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 정보원

중국 재외동포 신문의 정보원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길림신문』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 신문이 정보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료녕신문』에서는 남한 뉴스와 외신 정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두 신문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흑룡강신문』 역시 자체 취재보다는 인용 기사가 많은 편

<표 4> 중국 『길림신문』과 『료녕신문』 뉴스별 정보원 (단위: 건)

정보원	길림신문	정보원	료녕신문
길림신문(본지종합)	84	외신	111
신화넷	15	신화넷	12
인민넷	13	중신넷	8
흑룡강신문	8	중국 기타(길림신문, 동북아신문, 동북넷, 등원넷, 봉황넷, 연변인터넷, 온바오, 인민넷, 중국국제방송, 조글로, 중국망, 중국신문넷, 중앙인민방송, 해란강닷컴, 환구시보, CCTV)	35
료녕신문	6	동아일보(스포츠통아)	19
연변뉴스	8	뉴시스	18
연합뉴스	4	연합뉴스	189
기타(장춘일보, 길림성 정부 공식 사이트, 환구시보, 제1채널넷, 중국신문넷, 참고소식넷, 두만강신문, 중앙인민방송, 중국관광국넷, 신문화넷)	13	국내 기타(경인일보, 경향신문, 국제방송, 국민일보, 뉴데일리,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시사인, 아시아경제신문, JTBC, OBS, SBS, 익스포츠뉴스, 오마이뉴스, 이태일리, 중앙일보, 참세상, 코스인코리아닷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신문)	71
합계	151	합계	463

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이다. 즉, 자체 취재에 의한 뉴스보다는 인용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재외동포에게는 중국뉴스, 외신, 남한뉴스를 통한 남북한 뉴스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 외신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관영 신문이 정보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소수민족의 언론 또한 중국 정부의 통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앞서 제시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권력 혹은 정보제공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재외동포 언론을 위해 중국 정부의 통제와 남한 정부의 정보 생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보도 분야

분야별 분량은 남한 뉴스의 경우, 세 신문 공히 정치·경제 분야의 대중관계, 경제·노동, 사회·사건, 사회·관광 그리고 연예 분야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편이다. 대중관계 분야는 정치와 경제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대북·대일·대러관계보다 월등히 많아 조선족사회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노동 부문 역시 조선족의 남한 내에서의 노동조건, 노동시장 변화, 임금제도 등에 대한 것이 많았으며, 사회·사건 분야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 내 조선족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는 조선족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표 5> 중국 『길림신문』과 『료녕신문』의 남북한 보도 분야 (단위: 건)

구분	길림신문			료녕신문			흑룡강신문			
	남	북	남북	남	북	남북	남	북	남북	
정치	일반	0	0	0	5	17	13	7	0	1
	대중관계	45	2	0	63	11	0	75	2	1
	남북관계	0	1	0	5	4	4	15	4	2
	대미관계	0	0	0	3	40	0	3	7	0
	대일관계	0	0	0	2	5	0	5	0	0
	대러관계	0	1	0	1	12	0	0	5	0
	인물	0	2	1	19	15	3	8	8	0
경제	군사	0	0	0	4	15	5	11	6	0
	노동	5	1	0	1	1	3	10	0	0
	산업	6	3	0	15	6	1	67	2	0
	관광	2	4	0	21	11	0	77	2	1
사회	부동산	0	0	0	5	1	0	5	3	0
	일반	3	2	0	2	8	1	70	5	0
	교육/학술	13	1	0	3	4	1	31	2	0
	보건	1	0	0	6	0	0	1	0	0
	사건	9	0	0	63	10	0	148	2	0
	복지	10	0	0	6	0	0	2	0	0
문화	행사	1	1	0	2	1	0	3	1	0
	일반	1	0	0	4	10(IT)	1	17	7	0
	스포츠	2	1	2	4	3	3	17	1	0
	예술	7	0	0	1	1	0	4	4	0
	역사유적	0	0	0	7	6	0	0	0	0
	연예	8	0	0	2	1	0	248	2	0
	행사	3	1	0	1	0	0	20	4	0

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생활로서 경제생활,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한 사회 내에서의 강력사건, 사기, 밀수, 여권 위조 등의 부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남한 사회의 해결 노력 및 정보 자체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이 지극히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압도적인 보도량을 나타내는 연예 분야의 경우, 남한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는 한류에 의한 남한 연예인의 중국에서의 위상 강화를 반영하는 부분으로서 문화적 측면에서 남한 연예 활동의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족의 생활 터전으로서의 남한이라는 측면과 남한 연예인의 활동 공간으로서의 조선족 사회라는 양가적 측면에 동시에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 뉴스는 대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북한의 대외 외교 뉴스, 김정은의 동정 그리고 IT 분야(문화 일반으로 분류) 뉴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남한 뉴스는 산업적 측면에서 대중 교류나 정치 우호적 뉴스가 많은 반면, 북한 뉴스는 미국에 대한 비난 등 부정적 논조의 뉴스가 많은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해서는 남한과의 실질적 교류를 지향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식을 빌려 비난하려는 의도를 내재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뉴스의 경우 군사적 측면이나 교류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뉴스 생산 자체가 적다는 가정도 가능하겠지만, 남북한의 보도량과 보도 분야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북한보다 남한의 뉴스가 사실상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만큼 중국 재외동포의 남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반면 북한이 재외동포 언론공간 자체에서 소외되고 있고, 잊혀질 존재 혹은 매우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재외동포의 양국에 대한 의식의 불균형 문제 및 편견 형성의 문제까지 내포할 수 있다.

4.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보도 논조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등의 양적 특성 분석과 달리 보도 논조 분석은 좀 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내 언론의 북한 뉴스 분석에서는 첫째, (직접 취재의 어려움이나 안보적 특성에 의한 기밀성 등의 한계도 포함하여) 정부기관이나 외신에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여 단순 전달에 머무는 정보 의존적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둘째, 이들 문제 때문에 검증이 어려워 추측 보도와 오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의 역정보 추적과 토론 등에 의한 풍부한 정보 네트워크 형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념성 과잉의 문제로 여전히 과거의 적대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여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인식하거나 적대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접근 등의 편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언론사나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 편향성과 진보 편향성 등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논조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 남한에 대한 논조는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지만 부정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여기에서의 긍정과 부정은 논조의 긍정과 부정도 포함하지만 소재 자체가 긍정적인 소재나 부정적인 소재로 다뤄지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조선족의 사회 사건 같은 부정적 뉴스의 경우, 보도량이 매우 많았으며 그러한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로 포함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뉴스는 해석이나 평가보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논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한가를 중심으로 뉴스

<표 6>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보도 논조 (단위: 건)

구분	길림신문			료녕신문			흑룡강신문		
	긍정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남한	87	29	11	125	116	7	542	205	97
북한	9	1	10	96	74	7	26	14	27

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언론에서 많은 사실과 칼럼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뚜렷한 관점 제시보다는 소재의 선택을 통한 의견 제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인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족이 일으킨 강력사건, 조선족의 생활고, 위조 여권 문제, 남한 국민의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같은 조선족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한 축을 이루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세월호 사건, 땅콩 회항, 어린이집 아동 학대, 간통제 폐지, 남한의 부동산 문제, 경제적 침체,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남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징후, 높은 물가 등이 남한 사회 자체의 부정적인 뉴스로 포함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논조를 세부 내용으로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즉, 남한 긍정의 내용은 주로 관광과 대중관계에 관한 것이고, 부정의 내용은 강력 사건이나 조선족의 생활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에 대한 긍정 내용은 IT와 스포츠, 문화제 등으로 나타났고, 북한 부정의 내용은 미국 일본 비판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그 외에 중립보도의 경우는 여권이나 취업 등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한국 방문시 발생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7>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북한 보도 논조의 세부 내용

남한 긍정	남한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노력 강조 · 중국인 관광 동향성형 관광, 의료 관광, 경제 효과, 제주도 관광) · 적극적인 대중 교류(정치, 경제, 문화, 교육) · 교민 지원(교육) · 경제 동향경제 교류 활성화, 관광 활성화, 담뱃값 인상) · 조선족 사회 동향 · 남한 내 중국어 인기 · 연예인 동향과 인기 · 유학생 동향 · 남한 스포츠 스타의 세계적인 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족이 범인인) 강력 사건(밀수, 사기, 성매매, 살인, 피싱 등) · 조선족의 위명여권(위조여권) 문제 · 조선족 생활고(근로조건 문제) · 남한 국민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편견 ***** · 세월호 사건 · 한중 FTA 반대 · 땅콩 회항 · 어린이집 아동학대 · 간통죄 · 마약 · 부동산 문제 · 정치적 탄압(체제 비판자 구속 등) · 남한의 경제적 침체 ·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 남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정황 · 남한의 높은 물가 수준
북한 긍정	북한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경기 성과 · 국민들의 일상생활 · 정치인물의 주요 동향 · 대중 교류(문화, 교육, 관광) · 정보통신(스마트폰 인기) · 대미 교류 · 문화제 · 경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인물 신변 악화(건강, 행사 불참 등) · 미국 (주로 군사 정책으로서 대한반도 정책) 비판 · 강력 사건 · 탈북자 문제 · 핵실험 · 일본 비판(위안부 문제) · 김정은 풍자 미국 영화 문제

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반면, 북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는 남북한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논조가 많고 중립적인 입장이 적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뉴스가 조선족과 관련된 뉴스가 많고 정치 외교 등의 경성 의제(hard issue)에 대한 논조는 대부분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글은 재외동포 미디어의 남북한 뉴스 비교를 수행하여 이들 미디어의 수용자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세 종류의 조선족 신문의 남북한 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도량에서는 북한보다 남한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한에 대한 높은 관심 혹은 남한에서의 조선족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원의 경우는, 중국 신문 정보원이 높게 나타나 중국 정부의 성급 신문에 대한 통제를 알 수 있었으며, 남북한 언론을 정보원으로 하기보다는 외신을 정보원으로 하여 뉴스의 보도보다는 간접적인 뉴스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남한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유통 노력의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도 분야 역시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정치·경제적 대중관계에 대한 관심, 조선족의 남한 사회에서의 사건, 연예 분야에 대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뉴스의 매우 많은 부분이 남북한의 실정을 그 자체로 알리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뉴스 위주의 편향적인 뉴스 습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보도 논조는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지만 부정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서는 남북한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논조가 많고 중립적인 입장이 적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뉴스가 조선족과 관련된 뉴스가 많고 정치외교 등의 경성 의제에 대한 논조는 대부분 보도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째, 재외동포 언론 분석에서는 각국이 처한 미디어 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자유로운 미국의 언론 환경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에 대한 환경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저널리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좀 더 심화된 재외동포 언론 연구가 필요하다. 즉, 보도 논조 평가 이전에 기사의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가, 논쟁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을 제시하는가, 한쪽 입장만을 제시하는가, 그리하여 무엇이 말해지고, 무엇이 말해지지 않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심도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언론은 대부분 인용기사가 많기 때문에 기사 자체의 정확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이 글이 목적으로 한 프레임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셋째, 재외동포가 정치적 실체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매우 부족하다. 재외동포들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타자로서 그저 외부에서 남북한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수동적 반응을 넘어 진정한 소통에 의한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미디어의 좀 더 적극적인 재외동포 대상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측면에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의식조사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재외동포 언론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도기사 외 연구자료나 조사자료 모두 지속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미디어와 주체로서 재외동포의 상호 작용 혹은 각국의 다양한 재외동포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 정부의 노력, 남한 정부와 대상 국가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남한 미디어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가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매체의 차단성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 의한 차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보와 뉴스 차단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적인 정보 접근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자 향후 재외동포와 본국 간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접수: 7월 1일 / 수정: 8월 2일 / 채택: 8월 4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현두, 『해외교포방송 및 수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한국방송개발원, 1992).

김원태, 『재외한인 언론의 역사와 현황 기초연구』(서울: 집문당, 2005).

민형배 외, 『재외한인 언론수용구조와 한국어 매체의 내용』(서울: 북코리아, 2006).

임채완 외, 『재외한인 언론인 네트워크』(서울: 북코리아, 2008).

_____, 『재외한인정보자원 생성과 변천』(서울: 북코리아, 2008).

채백·이재현, 『중국 조선족의 언론과 문화』(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5).

한동섭·김형일,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 논문

김복수, “해외교포신문의 실태와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2집 1호(1994).

김영기, “한민족 공동체와 언론의 역할,” 『한국동북아학회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1).

김원태, “재미 한인 사회의 한인방송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9호(2000).

_____, “중국 조선족 언론의 발전과정과 대한국관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3호(2002).

김원태·박세종, “재미 한인의 언론 수용 구조와 특징: 민족정체성과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세계한민족 네트워크: 韓裔, 교육, 문화공동체 자료집』(2005).

김유정 외, “중국 동포 커뮤니티 형성과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제56집 3호(2012).

- 민형배, “재중 조선족 언론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특징: 동북 3성 신문·방송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0호(2004).
- _____,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의 언론매체 수용구조 변화: 남한방송 이용자의 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조선족사회 발전을 위한 귀향 아리랑 문화축제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5).
- 신정화, “김정일 정권의 대일 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1호(2010).
- 심재철, “지역사회 지향성과 신문 이용: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0호(1995).
- 이제환, “동경 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 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1호(2005).
- _____, “재미한인의 정보행태: 중서부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집 2호(2008).
- 이제환·노지현,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집 4호(2005).
- 이제환·장덕현·이연옥,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관서지역 거주 한인들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집 3호(2004).
- 임영상, “재외한인사회와 디지털 콘텐츠,” 『재외한인연구』, 제23호(2011).
- 전일옥, “중국언론매체의 남북한 보도태도 비교연구: 길림신문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제22집 2호(2012).
- _____, “중국 흑룡강 신문의 남북한 보도내용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23집 1호(2013).
- 주지혁, “초국적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과 효과: 연변 조선족 대학생의 한국 위성방송 이용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차희원·조은영·백상기, “공중외교적 관점에서 본 재외동포의 모국 미디어 이용과 모국 명성의 관계: 미국, 태국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7집 3호(2013).

3) 신문

『길림신문』, 『료녕신문』, 『흑룡강신문』(2014년 10월~2015년 3월분).

4) 기타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2013).

한국방송개발원, 『해외교포방송 및 수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199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1).

_____, 『2011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2a).

_____, 『재외국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2012b).

_____, 『2012년 재외동포 언론사 기획취재 기사 모음집』(2013).

_____,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14).

2. 국외 자료

Herman, E. S. and N. Chomsky,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A Study on Korean-Chinese Media's Frame
toward South and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amount, sources of the news
and editorial tones

Lew, Seok-Jin(Sogang University)

Cho, Hee-jung(Ewha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disclose and analyse how the media published by the Koreans abroad portray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newspapers —both online and offline— by Korean-Chinese. The importance of this topic lies in the fact that the issues, images and perspectives produced by those media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images and perceptions of those who consume the news on South/North Korea. This can be called ‘the media frame effect.’

We have analyzed three newspaper (Jilin Newspaper, Liaoning Newspaper and Heilongjiang Newspaper) with a focus on the amount, sources of the news and editorial tones. First, the amount of the news is heavily leaned

toward South Korea, vis-a-vis North Korea. Second, the sources of the news are mainly Chinese newspaper and foreign media, rather than direct quotation of South/North sources. Third, main topics covered encompass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incidents involving Korean-Chinese living in Korea and entertainments. Lastly, the general editorial tones are more positive as opposed to negative. However, there were rare editorials on the hard issues such a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political nature of Chinese regime.

This study argues that how the media published by the Koreans abroad portrays South/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how they perceive South/North Korea. Rare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this topic. This paper argues that in designing the embracing policy for the Koreans abroad, the government should look at the media environment of those Koreans abroad, which has been neglected up until now.

Keywords: newspaper published by Koreans abroad, Korean-Chine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